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곳, 불광천을 찾아서



삭막한 도시에서 내비치는 한줄기 빛처럼,  
 자연에 대한 목마름으로 지쳐있던 은평구민들에게 불광천은 새로운 안식을 제공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쾌적한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아난 불광천을 찾아가보자.

글 윤종환 · 사진 곽동근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한가로운 풍경

청명한 겨울 하늘 아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찬란한 햇살을 받아 속삭이듯 반짝이는 강물 위로 사이좋은 물새 떼들이 유유히 헤엄친다.

두꺼운 방한복도 모자라 찬바람 닿지 못하게 목도리로 목과 얼굴을 칭칭 감아 두 눈만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씩씩하게 두 팔을 흔들며 하천 따라 난 산책로를 걷고 있다.

자연과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 지난 1월 초 은평구청의 안내를 받아 찾아가본 불광천변의 풍경이다.

우람하게 버티고 서 있는 북한산 아래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사람 사는 동네의 향기를 풍긴다.

사람 사는 동네에 사람만 있고 자연이 없으면 그 향기는 자칫 악취가 되고 말 것을, 다행히 다시 살아난 불광천 덕분에 이곳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동네, 크게 들이켜 말고 싶은 어울림의 향기가 있는 곳이다.

## 물이 살아야 자연도 살아나

북한산에서 발원하여 불광동 424번지를 기점으로 대조동, 역촌동, 신사동을 끼고 흘러 북가좌동과 수색동을 지나 성산동에서 홍제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흐르는 불광천은 지난 1980년대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하천 복개 공사로 인해 물이 없는 하천, 악취를 풍기는 하천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불광천에 다시 물이 흐르고, 살아난 하천 주변으로 화사한 자연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3년 정도 진행된 불광천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은 도로로 이용되는 상류 복개구간을 제외하고 은평구 신사동 신사교 하류부터 4,476m에 이르는 개거 구간에서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10,000톤/일)를 끌어와 흐르게 했다.

또한 콘크리트 제방 대신 자연석을 깔고 물고기들의 서식할 수 있도록 여울과 소를 만들었다.

겨울에도 얼지 않은 얇은 하천 물 속으로 어디서 찾아왔는지 펄떡이는 물고기들의 섬 없이 헤엄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물이 살아야 자연이 살고, 자연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는 것을 불광천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다.

## 불광천에 살으리랏다

불광천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은평구청은 불광천변에 산책로와 지압보도, 체육시설 등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달라진 불광천의 모습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오래도록 불광천 곁을 지켜왔던 은평구 주민들은 거짓말처럼 맑은 물이 흐르고, 버들치, 붕어 등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불광천을 보면서 이제야 막혔던 숨구멍이 탁 트인 듯 살맛이 난다고 한다.

어린 시절 허리까지 차오르던 맑은 개울물을 기억하는 토박이들이 시커멓게 죽어 가는 불광천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만 그 시절의 물장구치던 추억은 잊어야겠다고 단념할 때쯤 불광천은 다시 물이 흐르고 아이들이 해맑은 웃음소리 토해내며 무리지어 돌다리를 건너는 아름다운 풍경을 가만히 드러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간직할 불광천의 추억은 돌다리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소리이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차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의 싱싱함이다.

하필 추운 겨울에 이곳을 찾아, 봄이면 천변에 흐드러진 풀꽃과 여름이면 울창한 수생식물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운 탓일까. 어찌지 불광천은 이 계절보다는 다음 계절, 다음 계절보다는 또 그 다음 계절이 기다려지는 곳이다. 

